

‘파죽지세’ AI페퍼스, 구단 역대 최다승·승점 도전

오늘 오후 7시 서울장충체육관서 GS칼텍스전
11승 승점 33점…박정아·박은서 등 공격 기대



지난 8일 오후 4시 광주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배구단과의 전에서 2025-2026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세 번째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 (24-26 25-19 25-16 25-14)로 승리한 AI페퍼스 선수단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KOVO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구단 역대 최다승 기록 경신에 도전한다.

AI페퍼스는 11일 오후 7시 서울장충체육관에서 GS칼텍스 배구단과 전에서 2025-2026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네 번째 경기를 치른다.

앞서 지난 8일 AI페퍼스는 ‘선두’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 (24-26 25-19 25-16 25-14)로 승리했다. 앞서 ‘강호’ 현대건설을 3-0으로 완파했던 AI페퍼스는 이로써 2연승 질주에 성공했다.

그 결과 AI페퍼스는 11승 15패 승점 33점을 기록, 리그 6위 자리를 유지했다. 5위 GS칼텍스 (승점 41)와는 승점 차를 한 자릿수로 좁혔다. 또 지난 시즌 달성했던 구단 역대 최다승 (11승·승점 35) 타이 기록에도 성공했다.

현재 V리그 종료까지 남은 경기는 9경기. 단 1승과 승점 2점을 추가한다면 지난 시즌의 구단 역대 최다승과 최다 승점 기록을 모두 갈아치울 수 있는 상황이다. 꺼

져가는 봄배구의 불씨 또한 살렸다.

창단 이후 매 시즌 최하위에 머물렀던 AI페퍼스는 올해 1라운드에서 4승 2패로 깜짝 활약을 펼쳤다. 한때 리그 공동 1위에도 자리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선보였다. 하지만 2라운드 (2승 4패)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다. 3라운드 1승 5패, 4라운드 2승 4패를 기록하면서 거품이 꺼지는 듯했다.

5라운드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첫 경기 흥국생명전 패배 이후 리그 3위 현대건설을 셋아웃으로 잡아냈고, 리그 1위 한국도로공사도 승점 3점을 따내면서 제압했다. 리그 선두를 다투는 팀을 연달아 제압했다는 점에서 확실히 좋은 분위기를 탔다.

특히 올 시즌 초반 리그를 압도했던 공격력이 살아난 점이 가장 고무적이다.

외인 주포 조아는 도로공사전에서 양 팀 최다 득점 (공격성공률 54.9%)을 올리며 공격을 주도했다. 최근 5경기로 넓혀봐도 매 경기 30득점 이상을 챙기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뽐내고 있다. 최근 6경기 평균 공격성공률은 56%에 달한다.

공격 지표 또한 화려하다. 리그 득점 4위 (675점), 공격 종합 1위 (공격성공률 48.11%), 오픈 1위 (성공 172회·성공률 41.55%), 시간차 2위 (성공 90회·성공률 67.74%), 후위 1위 (성공 90회·성공률 46.70%) 등으로 리그 최상위권에 위치했다.

조이가 기복 없이 공격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팀 분위기 역시 살아나고 있는 모양새다.

아시아쿼터 시마무라 또한 지난달 21일 현대건설전부터 3경기 동안 16득점, 17득점, 16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에 힘을 실고 있다.

더욱 반가운 건 그간 부진했던 날개 쪽에서도 득점포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웃사이드 히터 박은서는 최근 두 경기 연속 두자릿수 득점을 달성했다. 최근 도로공사전에서는 무려 20득점 (공격성공률 51.61%)을 뽑아내면서 팀 승리를 견인했다. 여기에 올 시즌 부진에 허덕인 박정아도 이날 11득점 (공격성공률 38.46%)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약 3개월 만

의 두 자릿수 득점이다.

AI페퍼스가 이 기세를 이어간다면 6라운드까지 충분히 순위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

이번 경기 상대인 GS칼텍스는 현재 14승 13패 승점 41점으로 리그 5위에 자리하고 있다. 최근 3경기에서 흥국생명, IBK기업은행, 정관장을 차례로 연파하면서 패조의 분위기를 이어가는 중이다.

GS칼텍스는 리그 득점 1위 실바 (839득점·공격성공률 46.66%)가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다. 공수에서 고른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주장 유서연 (리시브 5위·리시브 효율 38.19%)도 팀 승리를 이끌고 있다.

AI페퍼스와 GS칼텍스의 올 시즌 상대 전적은 2승 2패로 팽팽하다. 이번 경기에서는 누가 더 집중력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지가 승부의 가능자가 될 전망이다.

역대 최고의 시즌을 꿈꾸는 AI페퍼스가 GS칼텍스를 꺾고 새 역사를 작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유승은, 스노보드 빅에어 ‘동메달’ 새역사



한국 여자 스키·스노보드 첫 입상…종목 역대 첫 멀티메달
빙속 이나현, 1000m 9위로 최고 순위·1992년 유선희 넘어

한국 여자 스노보드 유승은 (성북고)이 빅에어 동메달을 따냈다. 대한민국의 두 번째 메달이자, 한국 여자 스키·스노보드 사상 첫 입상이다.

2008년생 유승은은 10일 (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베노 스포스파르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남페조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결선에서 171점을 획득, 무라세 코코모 (일본·179점)와 조이 사토스키 시넨 (뉴질랜드·172.25점)에 이어 3위에 오르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국은 전날 스노보드 김상겸 (하이원)이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이날은 유승은이 동메달을 추가, 한국 스키·스노보드는 역대 처음으로 단일 올림픽에서 2개의 메달을 거머쥐었다. 유승은은 한국 여자 스키·스노보드 선수 첫 메달리스트에 오르는

영예도 안았다.

유승은은 1차 시기에서 몸 뒤쪽으로 네 바퀴를 회전하는 ‘백사이드 트리플 록 1440’으로 87.75점을 받았고, 2차 시기에서 프론티어사이드로 네 바퀴를 돌며 83.25점을 기록했다.

3차 시기에선 착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 넘어지면서 20.75점을 기록했으나 높은 점수 2개를 합산하는 규정상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밀라노 스피드스케이팅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000m에선 차세대 에이스 이나현 (한국체대)이 1분15초76의 기록으로 9위에 안착했다.

이로써 이나현은 1992 알베르빌 동계 올림픽에서 유선희가 거둔 한국 선수 올림픽 여자 1000m 최고 순위 (11위)를 34년 만에 갈아치웠다. 같은 종목에 출전한 김민선 (의정부시청)은 1분



유승은

16초24의 기록으로 18위를 기록했다.

컬링 믹스더블 김선영 (강릉시청)-정영석 (강원도청) 조는 코르티나남페조의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라운드로빈 9차전 최종전에서 노르웨이의 크리스틴 스카를리예-마그누스 네드레고텐 조에 5-8로 3승 6패, 9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루지 1인승 정혜선 (강원도청)은 1·2차 시기 합계 1분49초587을 기록해 25

명의 출전 선수 중 24위에 머물렀다.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댄스 임혜나·권예 (경기일반) 조는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리듬댄스에서 기술점수 (TES) 34.28점, 예술점수 (PCS) 30.41점, 총점 64.69점으로 23개 출전팀 중 22위에 그치며 상위 20위까지 주어지는 프리댄스 진출에 실패했다.

첫 과제 시퀀스 트위즐 (한 발로 회전하는 동작)에서 권예가 두 번째 회전을 시도하다 스립이 꼬이며 추종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 뼈아팠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동계 스포츠 불모지 한계 딛고 도약할 것”

시체육회, 전국동계체전 선수단 결단식

6종목 120명 참가·득점 160점 획득 목표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9일 시체육회 관 중회의실에서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결단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결단식에는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을 비롯해 박찬국 스키·스노보드 협회장, 박병석 빙상연맹회장, 송주현 컬링연맹회장 등 종목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린다.

광주 선수단은 컬링 중등부 선수단이 새롭게 참가하고, 빙상 종목에서도 선수 7명이 추가 출전하는 등 6개 종목 120명으로 선수단 규모가 확대됐다.

동계종목의 불모지로 평가받는 광주이지만, 각 종목단체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동계종목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9일 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결단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160점 이상 획득, 종합순위 12위를 목표로 각 훈련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광주 선수단은 제103회 대회 14위를 시작으로 제104회와 제105회에서 각각 13위, 제106회 대회에서는 12위로 순위 끌어올리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동계종목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인

노력을 통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중이다.

시체육회는 이번 동계체전을 계기로 기존 빙상장을 적극 활용해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등 빙상 종목을 심으로 전국대회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경기력을 갖추도록 다방면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현재 광주는 동계종목에서 다소 열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보유한 빙상장을 적극 활용해 빙상 종목을 중심으로 전국대회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경기력을 갖추도록 다방면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 유도, 국제 합동 훈련…경기력 강화 ‘온 힘’

순천 팔마트레이닝센터서 일본 선수단 등 250여명 참가

전남 유도가 일본·몽골 선수단과 대규모 합동 훈련을 추진, 경기력 강화에 힘을 쏟는다.

10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남 유도는 지난 1일부터 순천 팔마트레이닝센터에서 국내·외 선수 및 지도자 25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합동훈련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경기력 향상과 국제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에는 일본 오사카 지역 대학 선수 및 실업팀 선수와 지도자 21명, 몽골 오르흐준 고등학교 및 대학팀 선수 12명을 비롯해 국내 실업팀·대학팀·고등학교 팀 선수단, 전국체전을 대비 중인 전남 소속 선수들이 대거 참여했다.

전남은 이광희 (여수시청), 신채원·이윤선 (이상 순천시청) 등이 참여하면서 기량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이번 훈련은 국내 선수들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선수들과 함께하는 합동 프로그램으로 구성, 기술 교류와 전술 이해 증진은 물론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받는다. 훈련 기간 참가 선수들은 종목별 맞춤형 훈련과 실전 중심의 합동 연습을 통해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지도자 간 코칭 노하우와 훈련 기법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진다.

전남 유도는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제107회 전국체전 대비 실전 대응 능력 향상, 선수 간 경쟁력 향상, 국내·외 스포츠 교류 확대라는 3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